

구 홋카이도 칙식은행 오타루 지점

2017년, 구 홋카이도 다이쇼쿠 은행 오타루 지점에 니토리 미술관이 개관했습니다. 이 다이쇼쿠 은행의 지점은 오타루의 경제적 번영이 절정에 달했던 1923년에 지어졌고, 같은 해에는 오타루 운하도 완공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홋카이도 최대 규모의 건물 중 하나였으며, 지상 4층에 은행과 대여 사무소가 있었고 지하에는 금고실이 있었습니다.

홋카이도 다이쇼쿠 은행은 오타루의 경제력이 쇠퇴한 1969년에 이전했으며 1989년에 호텔로 재개장할 때까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미술관으로 거듭나기까지 이 건물의 소유자는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현재 지상 4층과 지하에는 약 300점의 예술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소장 작품은 오타루가 번영의 절정에 있었을 때 활약한 예술가의 작품이 주를 이루며, 요코야마 다이칸(1868년~1958년)과 가와이 교쿠도(1873년~1957년)의 근대 일본화와 기시다 류세이(1891년~1929년)의 서양화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하는 특별전을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거 영업실로 사용되었던 1층은 흰색 트인 개방적인 공간으로 되어 있으며, 6개의 고대 그리스식 기둥이 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는 항구 도시 오타루의 역사를 나타내는 모티브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장식이 된 바닥은 1989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 이 건물은 호텔이었습니다. 1층에는 루이스 컴포트 티파니(*Louis Comfort Tiffany*, 1848년~1933년)의 스테인드글라스 창문 컬렉션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스테인드글라스는 그가 1915년에 뉴저지의 성 요한 성공회 교회(*St. John's Episcopal Church*)를 위해 제작했으며, 1990년대에 교회가 폐쇄됐을 때 회수된 것입니다. 창문은 뒤쪽에서 조명으로 밝혀져 있어 티파니가 스테인드글라스에 더한 오팔색 광채를 즐길 수 있습니다.